KOTRA 경제통상 리포트

일련번호 : US23-06
발 간 일 : 2022.02.09
보 고 자 : 워싱턴무역관 이준성

2022년 미국 수출입무역 동향 및 현지반응

◈ 美 상무부 2022년 수출입통계 발표(2.7), 무역수지 적자 역대 최대 기록
◈ 원인으로 코로나19, 러시아·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에너지, 소비재가 급등 언급
◈ 대중 제재에도 대중 무역적자는 역대 2위 수준 기록, 전망에 관심 집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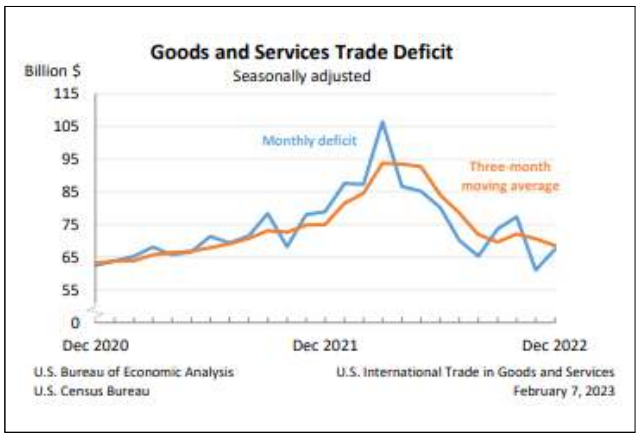
Ⅰ. 2022년 미국 상품·서비스 수출입무역 개요

□ 美 상무부, 2022년 대비 상품·서비스 수출입통계 발표, 무역수지는 적자 최대

○ 美 상무부가 발표한 2022년 12월 수출입통계 자료(2.7 현지시간)에 따르면 전년 대비 상품·서비스 수출입 물량이 모두 증가했으며 **역대 최대 규모의 9,481억 달러 무역수지 적자** 발생

- (12월) 2022년 12월 수출은 2,502억 달러, 수입은 3,176억 달러 규모로 전월 대비 각각 22억 달러 (-0.9%), 42억 달러(-1.3%) 증가해 무역수지는 674억 달러 적자를 기록
  * 12월 기준 3개월 평균 수출은 2,530억 달러, 평균 수입은 3,216억 달러로 증가, 전년 대비 64억 달러 감소
- (연간) 2022년 연간 수출은 3조 97억 달러(△17.7%), 수입은 3조 9,578억 달러(-16.3%)를 기록했으며,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890억 증가한 9,481억 달러(-12.2%) 적자 기록

<미국 상품·서비스 12월 평균 무역수지>



[자료] 미국 상무부 수출입통계

<미국 상품·서비스 연도별 수출입 비교>

[자료] 미국 상무부 수출입통계

- (국가별) 2022년 중국과의 무역수지 적자가 전년 대비 3,553억 달러에서 3,829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멕시코 1,305억 달러, 베트남 1,161억 달러 순으로 적자를 기록
  * 무역수지 적자 순위는 중국, 멕시코, 베트남, 캐나다, 독일 순이며 한국은 9위(2021년 13위) 기록

Ⅱ. 2022년 주요 지역 및 품목별 수출입무역 동향

□ 주요 지역(국가)별 수출입 동향

○ (수출) 아시아·태평양(7.7%), EU(28.6%), 북미(16.5%), 중남미(29%) 아프리카(4.8%) 등 주요 교역 지역·국가 대상 모두 증가세를 기록

- 주요 수출 교역국으로는 캐나다, 멕시코, 중국 순이였으며, 한국은 여덟 번째에 자리매김.

○ (수입) 아시아·태평양(10%), EU(12.8%), 북미(20.2%), 중남미(23.5%) 아프리카(11.4%) 등 주요 교역 지역·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증가

- 주요 수입 교역국으로는 중국, 멕시코, 캐나다 순이였으며, 미국 행정부의 對중국 무역 제재에도 중국 수입은 전년도 대비 8.3% 증가한 5,388억 달러를 기록

○ (한국) **'22년 대한 무역적자는 438억 6,800만 달러**(-51.4%)를 기록

- 대한 수출액은 714억 7,000만 달러, 수입액은 1,153억 3,8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, 이 중 첨단기술 무역적자는 151억 3,800만 달러로 높은 비중을 차지

* '21년 무역적자: 289억 7,600만 달러, 수출: 659억 4,200만 달러, 수입: 949억 1,900만 달러

** '21년 첨단기술 무역적자: 104억 3,500만 달러, '22년 대한 수출 141억 8,100만 달러, 수입 293억 1,900만 달러

<2021년 미국의 주요국 대상 수출입 및 무역수지 현황>

(단위: 백만 달러)

순위	수출		수입		무역수지(적자 순)		
	국가명	금액	국가명	금액	국가명	금액	증감률(%)
1	캐나다	356,113	중국	536,754	중국	-382,917	8.3
2	멕시코	324,378	멕시코	454,930	멕시코	-130,552	20.7
3	중국	153,837	캐나다	437,729	베트남	-116,123	27.8
4	일본	80,317	일본	148,330	캐나다	-81,616	63.1
5	영국	77,301	독일	146,608	독일	-73,686	5.4
6	독일	72,922	베트남	127,521	일본	-68,013	12.8
7	네덜란드	72,890	한국	115,338	아일랜드	-66,066	10.3
8	한국	71,470	대만	91,845	대만	-48,132	19.7
9	브라질	53,578	인도	85,671	한국	-43,868	51.4
10	인도	47,332	아일랜드	82,034	태국	-43,143	24.3

주: EU, ASEAN 등 지역 및 지역협의체 값은 통계에서 제외
자료: 미국 상무부 수출입통계(저자 가공)

□ 주요 품목(분류)별 수출입무역 동향

○ (**수출**) '22년 상품 수출은 3,241억 달러 증가한 2조 855억 달러를 기록했으며, 서비스 수출은 1,288억 달러 증가한 9,241억 달러를 기록

- 산업용품(1,908억 달러↑): 석유(475억 $), 천연가스(228억 $), 원유(281억 $) 등
- 자본재(510억 달러↑): 산업기계(54억 $), 민간항공기(47억 $)
- 소비재(241억 달러↑): 의약품(70억 $), 휴대폰 및 가정용품(15억 $) 등

○ (**수입**) '22년 상품 수입은 4,256억 달러 증가한 3조 2,773억 달러를 기록했으며, 서비스 수입은 1,304억 달러 증가한 6,804억 달러를 기록

- 산업용품(1,609억 달러↑): 원유(651억$↑), 석유(83억$↑), 제철(40억$↑) 등
- 자본재(1,035억 달러↑): 전자기기(197억$↑), 컴퓨터(30$↑), 의료장비(22억$↓)
- 소비재(762억 달러↑): 휴대폰(110억 $↑), 장난감, 스포츠(27억 $↑), 가정용품(8억 $↑) 등

○ (**평가**) 산업용품 중 **원유 수입 가격 급등**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되었으며, 전자기기·휴대폰 등 일부 품목의 수입은 꾸준히 증가했지만, **코로나19 완화로 의료장비 수입은 감소**

<2022년 미국의 주요 품목별(Trade in Goods by Principal End-Use Category) 수출입통계>

(단위: 백만 달러)

연번	품목 분류	수출		수입	
		금액	증감률(%)	금액	증감률(%)
1	식품·사료·음료 (Foods, Feeds, Beverages)	180,034	9.3	208,258	14.3
2	산업용품 (Industrial Supplies)	827,750	30.0	810,719	24.8
3	자본재 (Capital Goods)	571,627	9.8	864,669	13.6
4	자동차 (Automotive Vehicles)	158,354	9.9	399,078	15.0
5	소비재 (Consumer Goods)	246,421	10.9	842,599	10.0
6	기타 (Other Goods)	80,600	22.5	121,358	-2.6
7	합계 (Total Census Basis)	2,064,787	18.4	3,246,681	14.9

주: 금액(Census Basis) 기준
자료: 미국 상무부 수출입통계(저자 가공)

Ⅲ. 2022년 수출입무역 현지 반응 및 전망

□ 현지 반응

○ 다수 전문가는 '22년 **범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무역적자가 심화**된 것으로 평가

- 월스트리트저널, 뉴욕타임스 등 다수 기관은 러·우 사태 이후 발생한 에너지가 급등,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일부 산업군에서의 공급망 병목현상 등이 국제 소비 수요를 완화한 것으로 분석

-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소비자들이 강달러 기조 속 수입품 소비를 늘린 것도 미국 무역적자 증대 요인으로 언급

○ 서비스 무역 증가로 **경제 정상화 기대**

- '22년 회복세를 보인 미국의 서비스 무역과 관련해 E&Y 그레고리 다코(Gregory Daco)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"무역 추세에 팬데믹의 영향이 사라지면서 상거래가 정상화되고 있음이 나타난다"라고 평가

□ 향후 미중 무역관계 전망

○ '18년부터 지속해온 **대중 제재에도 불구, 대중 상품 수입은 소폭 감소**에 그침.

- (규모) 상호 제재에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3,829억 달러(△8.3%)를 기록했으며, 대중 수출·수입액은 각각 1,538억 달러, 5,388억 달러로 집계되어 역대 2위 수준

  * '21년 대중 무역적자 : 3,534억 9,300만 달러

- 폴리티코는 이번 대중 무역적자에 대해 "경제 분리 노력에도 불구, 미-중간 여전히 높은 상업적 연관성을 보여준다"라고 언급하며, 양국 간 경제 디커플링이 어려울 것으로 평가 * '22년 대중 상품 무역액은 6,807억 달러로, '18년 6,635억 달러 이후 최고치

○ 양국 간 무역은 **향후 10년간 점진적으로 감소**할 전망

- 보스턴컨설팅그룹(BCG)은 '31년 미·중 간 무역이 '22년 무역액의 10% 수준(약 630억 달러)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미국의 정책변화*가 주 요인이라고 언급

  * 감소 요인으로 미국의 니어쇼어링(Near-Shoring) 및 프렌드쇼어링(Friend-Shoring) 정책 활성화에 따른 ASEAN, 인도 및 멕시코와의 무역 확대를 제시

[자료원] 미국 경제분석국(BEA), 통계청(Census Bureau), 블룸버그(Bloomberg), 워싱턴포스트(Washington Post), 폴리티코(Politico), 월스트리트저널(WSJ) 및 기타 무역관 보유자료